

서울시교육감 공식 선거전 임박 다자 구도 속 진영 단일화 ‘변수’

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진보·보수 다수의 후보 이름 올려
정근식 교육감, 재선 도전 유력해
지난 1년여간 교육행정 평가 중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공식 선거 일정에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3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후보군의 윤곽도 점차 드러나는 모습이다. 다자 구도 속에서 각 진영의 단일화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거취와 지난 1년여간의 교육 행정에 대한 평가가 선거 구도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선거전이 공개 국면으로 전환된다.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진보·보수 진영 모두에서 다수의 후보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강민정 전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서울교육 주요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현진 기자

밝힌 데 이어, 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을 지낸 김현철 서울 교육자치시민회의 대표와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이 잇따라 출마표를 던졌다. 여기에 조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도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보수 진영에서도 후보군이 빠르게 늘고 있다. 임해규 전 두원공과대학교 총장이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도 예비후보 등록 시점에 맞춰 선거에 뛰어들 계획이다. 이밖에 이연주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대변인과 김영배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도 출마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현직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거취도 선거 구도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아직 재선 도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보궐선거 이후 480여일간 서울 교육을 이끌며 정책 방향과 행정 기조를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 “사회가 필요로 한다면 결단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 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의 교육 행정이 각 후보의 공약을 가능하는 주요 비교 기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현직 교육감의 정책 성과와 행정 경험이 ‘검증된 선택지’로 인식되며,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고려대, 뇌신경 질환 조기진단 기술 개발

고려대 연구팀, AI기반 센서 개발
침 활용해 파킨슨·알츠하이머 진단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침을 활용해 뇌신경 질환을 비침습적으로 선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센서 기술을 개발했다. 초기 증상이 불분명한 퇴행성 뇌질환의 조기 진단은 물론, 현장형 검사 도입 가능성도 한층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2일 고려대에 따르면, 정호상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양승호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교수팀 및 박성규 한국재료연구원 박사팀과 함께, 침으로 뇌신경 질환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센서 플랫폼을 개발했다.

뇌신경 질환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은 비전형적인 증상이 먼저 나타나 진단 시기를 놓치기 쉽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표면증강 라만 산란(SERS) 기술 기반의 센서를 개발했다. SERS는 분자가 빛과 상호작용하며 나타내는 고유한 신호를 감지하는 분석 기법으로, 연구팀은 센서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해 침 속 극미량의 단백질 신호



(왼쪽부터)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정호상 교수(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양승호 교수, 한국재료연구원 박성규 박사(공동저자)

/고려대

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 신호가 더 뚜렷하게 포착되도록 GME 기술도 적용했다.

연구팀은 이 센서를 활용해 대표적인 신경 단백질인 Aβ42와 tau를 분석하고, 단백질의 상태에 따라 스펙트럼 신호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침 속 신경 단백질 변화를 판별할 수 있는 분석 지표를 도출했다. 이어 실제 임상 침 시료 67건에 적용한 결과, AI 모델을 통해 뇌전증·조현병·파킨슨병 등 3종 뇌신경 질환을 93.94%의 정확도로 구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별도의 침습적 검사 없이도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진단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유망기업 30개사 투자유치 지원

경과원과 도내 기업 글로벌 성장 도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유치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인베스트(INVEST) 경기’ G-Value(투자유치 유망기업) 3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경기’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도내 유망기업의 해외자본 유치와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투자유치 지원 사업이다.

시행 첫해인 2025년에는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정된 25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100회,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의 투자유치 활동 지원,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IRR) 6회, 글로벌 투자유치단 3회 파견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참여기업 가운데 7개사가 총 221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완료했으며, 5개사는 기술협력·투자유치·파트너십 분야에서 총 6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6년 모집 규모는 신규 참여기업 25개사와 연속 지원이 필요한 후속기업 5개사를 포함해 총 30개사다. 올해는도 전략산업 중 투자유치 유망분야인 AI·IT·로봇, 바이오·기후테크·푸드테크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전문 컨설팅 운영사를 2개사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기업으로, 도 전략산업 또는 투자유치 유망산업을 영위하며 글로벌 투자유치 계획을 보유한 기업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고3 학기 초부터 2027 대학입시 돕는다

서울시교육청, ‘썸 진학’ 본격 가동
진학정보 자료집·동영상·설명회 등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원장 임유원)은 예비 고3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가 2027학년도 대학입시를 학년 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학 지원을 추진한다.

2027 대입은 ▲전공자유선택제 선발의 안착 ▲의대 정원 변화 ▲학생부 위주 전형의 정성평가 강화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예상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공신력 있는 진학 정보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예비 고3 수험생이 학기 초부터 대입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자료집 제공, 주제별 진학지도 동영상 제작, 진학 설명회 개최로 이어지는 밀착형 진학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학 지원에는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현직 교사들이 참여한다. 썸(SEN)진학 교사용 프로그램과 썸(SEN)진학 나침판 모바일 앱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현장 경험이 반영된 신뢰도 높은 진학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 ‘썸(SEN)진학 2027 대입 고3 학년 초 자료집’을 6일까지 제작·배포한다. 자료집에는 2026 대입 결과 분석과 2027 대입의 주요 변화, 학년 초 준비 전략 등이 담겼

다. 해당 자료는 e-book 형태로도 제작돼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에 탑재되며, 교사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활용할 수 있다.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썸(SEN)진학 2027 대입 대비 주제별 진학지도 동영상’ 5편도 제작한다. 동영상은 10일부터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와 유튜브 채널 ‘서울교육 썸TV’를 통해 제공된다.

아울러 ‘썸(SEN)진학 나침판 고3 학년 초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 설명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5시10분까지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강당에서 열린다. 예비 고3 학생과 학부모는 ‘서울교육 썸TV’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연 15만원으로 인상

청소년·준고령층에 1만원 추가지원

서울문화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전년대비 1만원 늘려 연간 15만원으로 인상하

고, 올해 카드 발급과 사용을 시작했다 고 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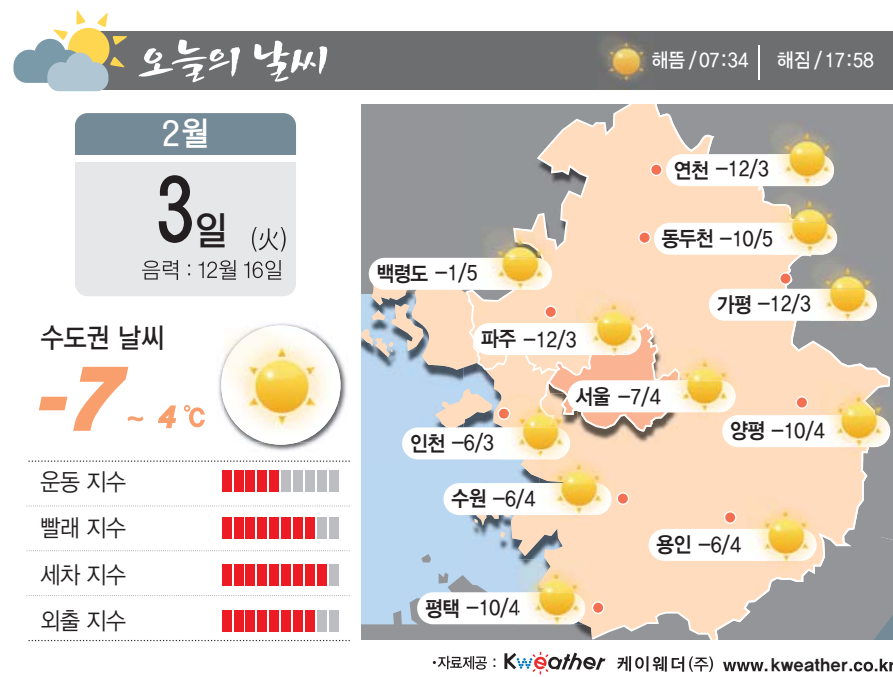
문화누리카드는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복권기금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제 취약 계

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총 670억원 규모로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5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본 지원금 15만원에 더해 ‘청소년기, 준고령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1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요르단, 마약단속 작전 13건…35명 체포, 무기·마약 다량 압수
▲美-이란 충돌시 中, 이란 적극 돕지 않을 것

/사진 뉴스스

▲총선 앞둔 日다카이치 지지율 고공행진 계속…무당파도 품었다
▲美, 이란에 협상 의사 전달…이번주 고위 회담 가능성도

▲억만장자 성범죄자 타인 러시아 간첩이었다…일각서 의구심 증폭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그레미 오디오북 부문 수상